

“회계투명성 높여라”... CPA 수요 폭증, 몸값 꺾춤

〈공인회계사〉



〈2〉 몸값 높아진 회계사

지난해 회계사 신입 채용 17.7% ↑
인력유치 위해 신입·경력 연봉 인상

지난해 11월 시행된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회계법인의 감사 권한이 확대돼 회계·감사 전문가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은 수습 공인회계사(CPA)를 싹쓸이했다. 휴업 상태였던 회계사들도 다시 현업으로 돌아오고 있다. 2019년 선발될 공인회계사 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감사 업무를 수행할 회계사가 늘고 있지만, 회계사 몸값은 부르는 게 값이다. 회계사가 다시 각광받는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회계사 수요 증가는 4대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채용 규모 증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4대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신입 채용은 전년 대비 17.7% 늘었다. 212명을 더 채용한 1198명에 달했다. 2017년에 합격한 공인회계사의 69.8%만이 4대 회계법인에 채용됐으나 2018년에는 21.5%포인트 늘어나 합격자의 87.6%인 792명이 4대 회계법인에 입사했다.

〈4대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신입 채용 현황〉

	2014	2015	2016	2017	2018	*증감
채용인원	772	890	1041	986	1198	212
해당년도 합격자	482	541	639	639	792	153
이전년도 합격자	289	349	402	347	406	59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886	917	909	915	904	
해당년도 합격자 중 4대 회계법인 채용 비중	54.40%	59.00%	70.30%	69.84%	87.61%	

* (2018년도 채용자 수-2017년도 채용자 수)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4대 회계법인의 채용 규모 증가에 대해 “신외감법 시행과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영향으로 회계 전문인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법인별로는 삼정이 370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많은 회계사를 채용했다. 삼일회계법인(365명), 한영회계법인(260명), 안진회계법인(203명) 순으로 채용규모가 컸다. 신입 회계사 채용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삼일이다. 지난 2017년보다 작년에 97명(36.2%)을 더 채용했다.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회계사도 늘었다.

7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2019년 2월 기준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소속돼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업회원은 전년 대비 5.73% 늘어난 1

〈공인 회계사 현황〉

	2018	2019	증감률
전업회원	12,205	12,904	5.73%
개업회원	726	560	-22.87%
휴업회원	7,123	7,412	4.06%
합계	20,054	20,876	4.10%

(2019년 2월 기준)

*전업회원=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소속된 회계사
*개업회원= 세무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법정감사는 수행할 수 없는 회계사

/자료=한국공인회계사회

만 2904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선발될 공인회계사 수도 늘어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19년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인원을 기존 850명보다 150명 늘린 1000명으로 정했다. 회계 업무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19년도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는 2008명이었다. 보통 1차에서는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의 두배수를 뽑는다.

금융위는 당시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증가하고, 신외부감사법 시행 등에 따라 외부감사 인력 수요가 기존 회계

법인, 감사반 소속 회계사 수(1만2056명) 대비 약 6.4%(772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증원 이유를 설명했다.

늘어나는 회계사 수요에 공채 순회주의를 고집하던 기조를 바꾼 곳도 있다.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는 “경력 회계사는 뽑지 않겠다던 회계법인에서 지난해 경력직(회계사)을 뽑아 우리 회사에서도 간 사람이 있다”며 “최근 들어 감사 인력 수요가 많아졌다”고 했다.

4대 회계법인의 회계사 몸값도 치솟았다. 지난해 말 4대 회계법인은 회계사의 기본급을 일제히 인상했다. 다른 대

형 회계 법인들도 감사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동일 수준으로 연봉을 인상했다. 기본급이 약 6000만~7000만원인 5년차 회계사를 기준으로 약 1000만원 가량 인상됐다는 후문이다. 4000만원 안팎이던 4대 회계법인의 신입 회계사 연봉도 4000만원 후반까지 상승했다.

4대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2년차 회계사 B씨는 “작년까지 20만~30만원 수준으로 절끔 오르던 연봉이 최근 600만~800만원이나 올랐다”며 “내년에는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시 업계로 돌아올 의향을 내비치는 회계사도 늘었다. 2년 전까지 대형 회계법인에서 일하던 C씨는 “내가 일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4대 회계법인에 들어갈 수 회계사는 합격자의 절반 정도에 머물렀다”며 “연봉 오르는 걸 보니 다시 회계사 일을 하고 싶어졌다”고 했다.

10년 넘게 회계법인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둔 그는 “주변에도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다시 일선 복귀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배한님 기자 ericbae1683@metroseoul.co.kr

‘번트급’ 대책으로는 한계 빅픽처 통해 근본 대책을

추경 편성에 골머리 앓는 정부

한국경제가 위기라는데 이견은 없다.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내수 시장까지 한층 더 위축돼 소비 침체→기업 수익 감소→투자·고용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가중될 것이라 우려도 나온다. 실망만 하다가는 더 큰 수렁에 빠질 수 있다.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정부는 경기 둔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골몰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정부가 직접적이고 효과가 제한적인 ‘번트급’ 정책에서 벗어나 ‘빅 픽처(Big Picture)’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세계 각국은 4차산업혁명을 리드할 빅 픽처 기술개발과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추경편성할 돈? ‘8조+알파(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미세먼지, 수출 등 경기 대응, 일자리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준비해 4월 하순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관심은 추경 규모로 향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가 올해 목표인 2.6~2.7% 성장을 달성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0.5%가 넘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GDP의 0.5%는 약 9조원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를 선연적으로 정해놓고 짜지는 않지만, IMF 권고 수준에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9조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시장에서는 8조원+알파(α)로 예상

한다. 키움증권 김유미 연구원은 “이번 추경규모의 성장 제고 효과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005년 이후 진행됐던 추경규모는 GDP에서 평균 0.67% 수준으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규모를 최대 9조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GDP 대비 대략 0.48%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작년 추경 수준(0.21%)보다 높지만 과거 평균에 비해서는 낮다”고 말했다. KB증권 문정희 연구원은 “초과 세수 등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최소 규모는 13조 7000억원이 예상된다. 2019년 국내 실물경기 부진, 고용 위축,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을 고려하면 2016~2017년의 11조원을 웃도는 추경도 가능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스몰볼(small ball)’ 전략으로 희망 불씨 살려야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10조원이면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인데 성장률 제고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B증권은 추경이 13조원을 상회하는 규모로 편성된다면 경제적 효과는 0.3%포인트 가량 될 것으로 예상했다. 키움증권은 주요 재정승수 평균인 0.3~0.5를 근거로 추경의 성장 제고 효과를 연간 0.1~0.2%포인트라고 분석했다. 다만 추경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스몰볼(small ball)’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문호 정치경제 부장 kmh@

지역 경제를 살리는 현명한 선택

광주상생카드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발행하고 지역 내 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체크 및 선불카드입니다

광주상생카드 종류

체크카드 선불카드 (3 · 5 · 10 · 20 · 50만원권)

이용제한 업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온라인 가맹점(PG, 인터넷MALL), 유흥업소 등

발급신청 및 구매방법 (운영대행: 광주은행)

체크카드
광주은행 영업점,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광주은행 모바일앱(m.kjbank.com)

선불카드
광주은행 영업점
※ 현금 또는 광주은행 신용·체크카드로 구매가능

사용자 혜택

체크카드
캐시백, 패밀리랜드·기아챔피언스필드 입장권 할인 등

선불카드
권면금액의 5% 할인판매 (1인당 할인가는 구매년도 월간 50만원, 법인제외)
※ 2019년 광주광역시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이용가능 업소

광주광역시 소재 9만여개 가맹업소

카드 이용 문의전화

광주은행 카드 헬프센터 1577-3650